

【특 집】

미래의 하얼빈사

James Carter*

번역 : 김인욱**

차례

1. 머리말
2. 러시아의 하얼빈
3. 유대인의 하얼빈
4. 유럽의 하얼빈
5. 맺음말

국문초록

적어도 지난 400년 동안, 만주는 투쟁의 공간이었다. 漢族과 만주족, 청과 러시아의 갈등이 있었고,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열강과 이곳에서 충돌하였다. 조약을 체결하였다. 유럽의 여러 열강과 일본은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구가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만주에 대한 이권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1890년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중국동부철도가 건설되며 절정에 달했다. 한편 하얼빈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정구역이었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이전까지 러시아가 지배하고 발전시킨 도시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러시아의 유산이 적지 않다. 하얼빈 20세기 역사는 도시의 정체성과 식민지 유산에 대한 통제로 인해 발생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 미국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박사과정

이 논문은 이러한 하얼빈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21세기 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마련되었다. 다만 이전까지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는 하얼빈 식민지의 역사를 부정하고 제거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과거를 하얼빈의 경제발전을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0년대의 새로운 추세를 기반으로 하얼빈의 관료들은 세계의 문화적·경제적 분야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얼빈의 비중국적인 과거를 재조명하고 있다.

주제어: 만주, 하얼빈, 도시 정체성, 식민지 유산, 비중국적인 과거

1. 머리말

현대의 하얼빈은 러시아 건설자에 의해 세워졌다. 만주의 황야에서 활동하던 식민지 개척자들이 중국에 러시아의 도시를 세운 것이다. 1890년대부터 하얼빈은 ‘동양의 파리’라 불릴 만큼 현대적 대도시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1차 세계대전 즈음, 하얼빈에는 약 100,000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두 개의 주요 철도선이 만나는 곳이자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북만주 지역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¹⁾ 정교회 예배당, 시나고그, 자갈돌로 만들어진 대로, 아르누보 형식의 건물들 등은 하얼빈이 러시아의 지방도시로 느껴지게 하였다. 아시아인보다 많은 백인들이 다니는 도시의 중심가의 모습 또한 도시의 유럽식 외양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하얼빈은 중국동방철도의 경영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얼빈을 러시아의 식민지로서 감독

1) For accounts of Harbin's early development see David Wolff, *To the Harbin St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esp. Ch. 1; and James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esp. Ch. 1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17년 혁명 이후, 하얼빈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무너졌다. 중국 정부는 볼셰비키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러시아 황제의 정부는 더 이상 하얼빈을 유지할 힘이 없었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중국 관리들이 도시에 들어와 중국적 정체성을 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얼빈은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문화가 있는 다국적 도시였지만, 중국 관리와 중국식 건물과 사람들이 하얼빈의 러시아적 특성을 지배 - 적어도 문맥화(contextualize) -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이 1932년에 하얼빈을 점령하면서 다시 하얼빈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고, 하얼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는 1949년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유지하게 된다.²⁾

하얼빈의 다양한 과거에 대한 긴장 상태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좀 더 명확해진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서술한 역사들은 하얼빈이 근본적으로 러시아나 유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1000년이 넘는 중국적 과거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얼빈의 역사적 중요성은 반식민지적 기원이 아닌 중국공산당이 처음 지배한 중국의 도시에 있다고 주장되었다. 발굴된 유물들 또한 제대로 된 하얼빈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12세기에 여진 나라의 수도 중 하나가 하얼빈으로부터 수마일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여진족은 중국인이 아닌 만주족의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현 하얼빈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하얼빈은 오랫동안 중국사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³⁾ 하얼빈의 유럽적 과거 부정은 하얼

2) Details on the transition to Chinese rule can be found in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and Blaine Chiasson, Administering the Colonize (UBC, forthcoming)

3) Details on the use of historiography in support of Harbin's history can be found in Søren Clausen and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M.E. Sharpe, 1994)

빈 건립 100주년 행사가 현대 하얼빈이 러시아에 의해 세워졌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북경의 관리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1998년도에 절정에 달했다.⁴⁾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 관리들은 하얼빈을 명확한 중국 도시로만 내세우기보다 도시의 복잡한 역사를 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첫째, 경제의 동력으로서 관광과 상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 때문이었다. 하얼빈의 중공업 단지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고, 비효율적이었다. 한편, 하얼빈의 독특한 과거는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 무역업자,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러시아의 하얼빈’ 복구작업은 1998년에 재단장 후 문을 새로 열린 돔 형태의 소피아 성당이었다.⁵⁾ 비록 성당이 종교적 건축물로서 다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가 돔의 꼭대기에 다시 설치되었고, 개관식은 ‘세례’(洗禮, xili)라 불리었다. 개관식과 함께 나온 스크립트는 이 건축물이 하얼빈의 러시아적 과거를 일깨울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기도 했다. “다시 종이 울릴 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⁶⁾ 개관식 이후 10년 동안 소피아 성당은 하얼빈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성당은 관광 설명서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고, 돔의 실루엣은 많은 슬로건을 장식하기도 한다. 성당 앞의 쇼펍센터는 종종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꽉 차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성당을 결혼 사진의 훌륭한 배경으로 여기고 있으며, 밤에는 성당은 환한 조명을 받고 있다.

소피아 성당의 외형은 이렇게 불만하지만, 성당 내부는 그렇지 못하다.

4) Thomas Lahusen, "A Place Called Harbin: Reflections on a Centennial," *The China Quarterly* 154 (June 1998): 400-410

5)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 Sofia restoration here. For more details on the reconstruction, see Carter, "Touring Harbin's Pasts."

6) "Xili - Sheng Suofeiya jiaotang [Baptism - St. Sofia's Church] in *Quanguo zhongdian wenwu baohu danwei*:" Sheng Suofeiya jiaotang [National Protected Cultural Site: St. Sofia Church] (n.p: n.d), 134. Quoted in Carter, "Touring Harbin's Pasts," 159

성당은 예배당이 아닌 하얼빈 건축을 위한 작은 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했다. 또한 성당에는 손쉽게 다양한 전시물들을 전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성당 박물관에는 서툴게 복원된 오래된 사진들만 있을 뿐이다. 전시회는 임시적이고 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강한 인상을 주는 외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시 개장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물로 인한 피해 흔적과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버팀목들이 임시로 설치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의 악화는 지속되었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건축물이 상당한 구조적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다.⁷⁾

잘못된 점이 무엇이든, 소피아 성당의 재개장은 하얼빈의 식민지 과거의 부활을 의미한다. 소피아 성당과 중앙대로 (러시아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Kitaiskaya ulitsa: China Street라 불렸다.)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의 건축적 유산이 축복받고 있는 것이다. 이 자갈 도로로 주변은 하얼빈 내에서 가장 유럽식 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한 러시아가 설계한 송화강을 따라 설치된 부두로 이어진다.⁸⁾

10년 전부터 하얼빈의 식민지 역사의 부활이 시작된 이래, 하얼빈은 도시의 비중국적인 과거 복구와 재포장 작업을 지속해왔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몇 개의 각각 다른 맥락이 발견되기도 한다. 첫 특징은 ‘러시아의 하얼빈’이다. 소련의 밖에 위치한 가장 큰 러시아적 도시인 하얼빈을 다루면서,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무역과 관광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태의 하얼빈’이다. 하얼빈을 용서의 모델과 20세기 유럽의 유태인 약탈사에서 벗어난 유태인 사회와 문

7)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April 19, 2008

8) I wrote about this turn of events in “Touring Harbin’s Pasts,” in Daniel Walkowitz and Lisa Knauer, eds., *Memory and the Impact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Public Spa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149-16

화의 피난처로 그리는 것이다. 하얼빈의 지역 관리들은 이러한 이미지는 매우 강력하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과 직접 투자를 통한 수입 효과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좀 더 포괄적인 ‘유럽의 하얼빈’이 있다. 이는 유럽식 건축 양식, 도시 계획, 패션과 기호의 스타일과 감각을 포용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2. 러시아의 하얼빈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 망명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들이 소련 외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Russia Abroad’라는 조직은 혁명 이전의 러시아 문화를 보존하고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 러시아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모든 공동체들은 사라진 러시아 제국의 유물이 되고 말았지만, 유럽에서 떨어져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하얼빈은 조금 달랐다. 베를린, 파리, 프라하 등을 잇는 통신 및 교류가 어려웠던 하얼빈의 러시아인 사회는 어떠한 도시들보다 적은 변화를 겪으면서 혁명 이전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⁹⁾ 하얼빈 건설의 시기,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하얼빈의 지리적 문화적 고립상태는 하얼빈에 거주하던 러시아인(Kharbinty)의 향수를 1920년대부터 자극하였다. 이러한 향수는, 특히 하얼빈 거주민들이(Kharbinty) 하얼빈에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이주한 이후, 이들의 하얼빈에 대한 추억의 주요 부분으로 남아있다.¹⁰⁾

이러한 향수는 하얼빈의 비 중국적 과거 재생의 핵심이었다. 중국 관리들

9) Marc Raeff, *Russia Abroa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2-23

10) The most prolific student of the Russian émigré community in Harbin, is Olga Bakich, herself born in Harbin. See for instance “Émigré Identity: *The Case of Harbi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 1, Winter 2000): 51-73

은 1990년대 후반부터 소피아 성당 수리를 시작으로 하얼빈의 러시아적 과거를 재정비하고 다시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소피아 성당과 같은 종교 건축물들을 중심이 되었다.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은 하얼빈에서 가장 수가 많은 종교 건축물이었고, 문화대혁명을 살아남은 성당들은 하얼빈의 러시아 과거를 다시 정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5에서 20개의 이러한 성당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얼빈의 성당들에 대한 가장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의 정교회’ 웹사이트(www.orthodox.cn)에 의하면 러시아 정교회 하얼빈 교구에는 16개의 성당이 있었고, 이 중 12개는 하얼빈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교구는 현재의 흑룡강, 길림, 요녕, 내몽고까지 포함한다). 이 12개의 성당 중 4개는 문화대혁명 중에 파괴되었고, 3개는 이유가 확실치는 않지만 문화대혁명이나 혹은 그 이후에 잊혀지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5개 성당은 남아있는데, 소피아 성당(현 하얼빈 건축 박물관), 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 Mary (현재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사용); the St. Aleksejev Church (현재 카톨릭 성당으로 사용); the Church of the Dormition of the Virgin Mary (현재 하얼빈 문화공원 내의 놀이공원이자 식당), 그리고 St. Ibervel Church (현 상황을 알 수 없음)가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하얼빈에서 가장 유명한 정교회 성당은 문화대혁명의 가장 유명한 희생양이었던 St. Nicholas 대성당이었다. 이 성당은 문화대혁명 중에 홍군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그전에는 하얼빈에서 가장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었고, 엽서와 사진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1966년 8월 23일 성당은 완전히 파괴되어 공터만이 남아있었는데, 이 공터는 유럽식 건축물인 국제호텔, 성(省) 박물관과 Choorin 백화점과 같은 하얼빈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1997년에 abstract glass와 조형물이 공간을 매우기 위해 세워졌지만, 2005년에는 목조 성당을 다시 건립하자고 건의되었다. 비록 대

중적인 논의도 거의 없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지만, 이 건의는 1920년대 이후 하얼빈의 건축을 지배해온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얼빈의 한 중국 거주인은 어렸을 적 성당을 방문하는 좋은 추억들이 있다고 하며, 다시 지어진 St. Nicholas는 도시의 역사와 양식을 대표할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¹¹⁾

향토사학가들은 그만큼 확신에 차있지 않다. 같은 기사에는 하얼빈의 문화와 역사 연구 센터의 연구자인 리 싱성(Li Xingsheng)의 반대 의견도 있다. Li는 재건축은 식민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t. Nicholas 성당은 짜르의 식민주의를 나타내고, 다시 짓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얼빈시 시장은 당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허가 했지만,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복구작업이 진행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암시하는 증거도 없다.¹²⁾ St. Nicholas 성당에 대한 논쟁은 하얼빈 정체성과 누가 도시의 역사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장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St. Ibrvel Church에 대한 계획들에서도 보여진다. 1908년에 지어진 St. Ibrvel (Holy Iveron Icon Church라고도 불려짐)은 1904-5년 러일전쟁의 러시아 희생자들을 위해 지어졌다. 문화대혁명 중에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성당은 이후 잊혀지다가 현재는 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2004년 ‘지역사회센터’로 다시 개장하기 위한 성당 복구 계획이 표면화되었다.¹³⁾ 이 계획들은 하얼빈역의 새 정문과 연계되어, 성당 건물이 하얼빈의 교통 허브가 될 137,000m² 크기의 쇼핑 센터로 탈바꿈한

11) Li Fangchao, “Harbin talks of rebuilding church,” *China Dail* (Sept. 5, 2005), 3

12) Ibid

13) Jin, Guang-jun and Zhao, Cong-xi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China: Some Significant Good Practices.” Chapter in Gerard, et al., eds. *The Human Sustainable Cit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rom the Habitat Agend* (London: Ashgate, 2004): 488

다는 것이었다.¹⁴⁾

이로써 기차 승객들은 하얼빈 역에서 내리자마자 하얼빈의 본질을 보여주는 시각적 건축물에 노출되고, 이것은 하얼빈 역사 내내 있었던 건축정치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차역은 본래 거대한 아르누브 형식의 건축물이었고, 승객들은 작은 언덕 위의 풍경을 압도하는 St. Nicholas 대성당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흥분하고는 했던 것이다. 중국 관리들이 1920년대에 하얼빈의 도시 계획을 기획할 때, 그들의 첫 작업은 기차역 정문 맞은편에 있는 쇼핑센터에 세워졌던 새 중학교 건립이었는데, 이것이 공적 비용을 들여 만든 첫 중국식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이었다. 복구된 St. Iveron Church는 그 반대를 의미할 것이다. 즉, 승객들은 역에서 나와 러시아적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St. Iveron 성당의 다섯 개의 돔 밑에서 17개의 버스나 전차 노선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가 하얼빈 과거와 일부 관계가 있지만, 이 복구 계획들이 얼마나 진지한지는 확실치 않다. 하얼빈시 기획 사무소에서 이 계획이 발견되는데, 이 기관의 웹사이트는 이 계획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고 확정지으려 한다. 2007년 5월에 찍힌 사진들은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유지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또한 복구되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¹⁵⁾ 또한 이 사진들은 위에 언급한 쇼핑센터나 교통 허브 건설이 진행중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의견의 차이, 실행과 충분한 정보의 부재와 같은 요소들은 하얼빈의 과거를 어떻게 복구하고, 기억하며, 진척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지어진 다른 건축물들은 아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나 상징성이 덜 하기 때문에 - 혹은 상업적으로 의미가 적기

14) Li Fangchao, "Harbin to Rebuild Orthodox Church," China Daily (December 10, 2004), 3

15) http://www.orthodox.cn/contemporary/harbin/iveron_en.htm

때문에 -, ‘러시아의 하얼빈’의 부활 작업에서 비중이 낮다. 두 성당은 예배 장소로 쓰이고 있다. St. Alekseyev Church는 현재 로마 카톨릭 성당이고, 때때로 하얼빈의 카톨릭 대성당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1930년에 목조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이 성당은 하얼빈시 카톨릭 애국 협회의 본부이기도 하다. 하얼빈 시는 이 건물을 종교 건축물로 두되, 주위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성당의 외형을 사용하려 계획하고 있다. 좀더 면밀하게 말하자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은 파괴하여 더 나은 도시 생활의 위한 공공 장소를 만들고”, ‘성당의 시각적 외형을 강화하여 이 상업 지역의 상징물로 만드는 것’이다.¹⁶⁾ St. Ibervel 성당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들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하얼빈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the Ukrainiya Church 라고 불리우는 the 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 Mary 이다. 1922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문화대혁명 때 문을 닫았으나, 1984년 다시 문을 열었다. 이 건축물에 대한 복구나 재개 계획은 현재 없다. 하얼빈의 러시아적 과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성당은 공공의 성격이 적기 때문이다. 이 교구는 Grigory Zhu 신부가 2000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사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60명에 이르는 정교회 신자들이(모두 중국인이라고 한다) 평신도들에 의해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다.

Church of the Dormition of the Virgin Mary 는 살아남은 또 하나의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하얼빈 문화 공원 내의 오락/게임 센터, 식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의 하얼빈’의 또 다른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하얼빈 외곽에 있는 황산 지역에 위치한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성당, 공동묘지, 기념비가 복합

16) Jin and Zhao, 489

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하얼빈의 정교회 공동묘지는 원래 현 문화 공원에 성당을 주위에 위치한 식당에 위치했었는데, 1958년에 황산으로 옮겨진 것이다. 러시아 인들이 얼마 남지 않자, 묘지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고, 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찾자 2006년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6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 공동묘지를 빠르게 복구하기 시작하여, 새 담장이 설치되고 많은 묘와 묘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1년 뒤인 2007년 가을, 일본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 군을 기념하는 새 묘지가 만들어졌다. 이 묘지는 2주 만에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정치적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개장식은 중국의 외무부장인 양 지예츠(Yang Jiechi)와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인 Sergei Lavrov에 의해 주관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적 협력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것은 희생된 병사들의 이름이 새 묘비에 새겨진 것이다.¹⁷⁾

Lavrov 외무부 장관의 황산 묘지 방문은 중러 관계의 재개를 보여주고 있다. (몇 달뒤, Andrei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찾았다.) 두 나라의 이해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 에너지 생산국이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소비국의 위치를 넘어설 조짐이다. 2,700마일에 달하는 국경지대는 세계 최대이다.¹⁸⁾ 두 나라 모두 ‘다극 체제’내의 세력이 되고자 한다. 2001년에 설립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소련 연방 소속이었던 중앙아시아 4개국의 비정부 기구들로 이뤄진 상해협력기구(SCO)는 이러한 추세에 예이다. SCO의 전신인 the Shanghai Five는 1996년

17) The accou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Huangshan memorial cemetery is provided by Prof.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May 21, 2008). The meeting between Yang and Lavrov was reported in *Asia Time* (Oct. 31, 2007, available online at <http://www.atimes.com/atimes/China/IJ31Ad01.htm>)

18) Portions of the Sino-Russian border have been disputed for some time, most violently during a brief shooting war in 1969. The section of the border that was the focus of this fighting was finally agreed to in an agreement signed on July 21, 2008

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소피아 성당의 복구 계획이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의 연결성은 중러 관계의 힘과, 하얼빈의 실질적이고 또한 잠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얼빈의 역사가 이러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3. 유태인의 하얼빈

‘러시아의 하얼빈’처럼 하얼빈의 유태인적 유산의 복구 작업은 1990년 말에 시작되었다. 하얼빈의 흑룡강성 대학의 서양학 소속인 댄 벤-캐넌 교수는 1999년을 시작으로 하얼빈에 대한 유태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성 차원의 여러 계획들을 기록했다. 당시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인 장 티에지양(Zhang Tiejang)은 ‘흑룡강성 경제 발전을 위한 하얼빈의 유태인 연구에 대한 제안’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에서 유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도시 내의 유태인 관련 유적을 연구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중국내 언론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하얼빈의 유태적 과거를 연구하고 일으켜야 한다는 흑룡강성 공산당 서기 차원의 구상으로 이어졌다.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에는 유태인학 센터가 설립되었는데, 흑룡강성 당서기인 송파탕(Song Fatang)에 의하면 이는 ‘하얼빈 내의 유태인을 다시 불러오고, 하얼빈 시에 유태인의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이다.¹⁹⁾ 모든 관광업은 상업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이윤을 명확하고 공격적으로 쫓는 다는 점이나, 유태인의 금융이나 사업적 통찰력의 전형에 대해서 대중들의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해 할 만 하다.

www.kci.go.kr

19)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15 May 200

2004년 8월에 하얼빈 사회과학원의 지역사와 관광발전 연구소가 내놓은 관광 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하얼빈의 유대적 문화 자원은 완벽하고. 자원의 역사적 가치나, 스케일, 보호 상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뛰어나다.” 같은 문서는 좀더 집중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여 관광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 관리들이 하얼빈의 유대적 과거를 러시아의 것과 차별화 해야 한다고 청하고 있다.²⁰⁾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학자 뿐 아니라 사업가들과 정치가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하얼빈의 유대적 과거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중 가장 큰 컨퍼런스는 2007년 6월에 열린 83명이 참가한 ‘세계 유대인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었다. 83명중 17명은 학계 출신이었고 (이스라엘인 1명, 미국인 1명, 홍콩강성 사회과학원 15명), 그 외의 66명은 정치인, 사업가, 로비스트와 그들의 손님 등이었다. 개회사에서 하얼빈 시장은 이 모임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유대국가는 그들의 독특한 사업 기술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다수의 성공한 기업들로 ‘세계 제일의 상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세계의 돈은 미국인의 주머니에 있고, 미국의 돈은 유대인의 주머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칭찬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더 협조적이고 포용력을 가지며, 실용적인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²¹⁾

개회사에는 다른 상투적인 표현도 있었고 미국 산업의 선구자인 JP Morgan이나 John T. Rockefeller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반복되었다. 이는 하

20) Wang Jing, Harbin Jeis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unpublished paper (n.p., 2004), 5

21) Speech by Zhang Xiaolian, quoted in Ben-Canaan, “The Business of Stereotyping Business,” *Mizrek,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November 2008)7

얼빈의 금융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유대인 투자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²²⁾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인종에 대한 표현은 서구에서 - 특히 학술 대회를 표방한 컨퍼런스에서 - 드물다. 하지만 이는 하얼빈이 유대적 과거를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보여주는 다른 예들과 일맥상통한다. 유대인의 금융 능력과 유대인의 투자가 하얼빈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믿음은 하얼빈 지방 정부의 외무 사무소가 제작한 ‘하얼빈의 유대인 유적’이라는 영화를 통해 냉소적으로 잘 들어난다. 냉소, 무지, 반유대주의가 놀랍게 혼합되어 있는 이 영화는 “유대인은 수세기 동안 세계를 방랑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작하고, 이 방랑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19세기 말에 하얼빈에서 정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얼빈 시의 유대인 공동체의 대략적인 역사가 소개되고, 이 영화는 하얼빈의 유대인 거주자들과 연계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을 읊는다. 한 전형적인 예로, 유명한 러시아 식당으로 쓰이던 장소가 소개된다. “전 소유주는 유대인인 E.A. Katz 였습니다.” 조금 지난 후, 화면 위의 제목이 “Hotel Modern”이 유대인에 의해 세워졌다고 말한다. (민겨지지 않지만, 카메라가 이 20세기 초에 지어진 호텔 건축물의 복도와 건축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동안 유명 밴드의 연주한 “크리스마스 송”이 나온다.) 이 장면은 몬테스키외의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패가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끝마친다.²³⁾

이 영화는 유럽에서 벌어지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유대인들의 천국으로 하얼빈의 역사를 손쉽게 그리며 끝난다. “유대인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친절한 중국인들이 사심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들의 고마움을 돌려주었다... 하얼빈은... 유대인들의 행복을 위한 장소였

22) Ibid

23) Harbin City B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犹太人在哈爾濱的遺. *Youtairen zai Harbin de yij. The relics of Jews in Harbi*. (DVD), 2008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다시 초청한다. “하얼빈 인들은 현재에도 도시 내의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²⁴⁾

진부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수사와 함께 영화는 물리적인 복구 상황과 개선된 모습들을 비춰준다. 시 정부는 2004년에만 시나고그, 학교, 병원, 묘지와 같은 도시내의 유명한 유대관련 역사적 장소들을 복구 하는데에 3천3백만 위안을 투자하였다. 구 시나고그와 전 유대인 중학교는 그들의 독특한 건축 외형으로 ‘앞으로의 발전과 국제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한다.²⁵⁾ 현재 이 중학교는 1956년 이후 한국인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고, 구 시나고그(1921년에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실치 않다. 신 시나고그, 박물관, 그리고 다른 건축 장소들은 유대 ‘관광 루트’에 편입되었고, 중국과 해외의 여행사에 홍보되어 하얼빈을 상해, 개봉, 천진과 함께 ‘유대인의 중국’ 관련 관광 상품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유대인 묘지로는 가장 큰 황산의 공공 묘지는 신 시나고그와 박물관과 함께 ‘유대의 하얼빈’의 중심이다. 1903년에 만들어진 이 공동 묘지는 정교회 공동 묘지와 함께 시내에 위치한Nangang 지역에서 1958년 황산의 외곽으로 옮겨졌다. 묘지에 대한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850명의 묘, 600개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묘비(이중 500개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되었다.) 등이 있다. 정교회 묘지처럼 유대교의 공동 묘지는 21세기 초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의 방문이 있기까지는 잊혀져 있었다. 러시아 정교회 묘지의 경우, 러시아 관리들의 방문은 전략적, 정치적 큰 틀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었지만, 중국-이스라엘 관계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얼빈과 중국 관리들은 이스라엘과 하얼빈의 유대적 과거와의 연계를 돈벌이 기회로 여겨왔다. 2004년 이스라엘은 직무 대리수상이었

24) Ibid

25) *The relics of Jews in Harbi*

던 Ehud Olmert가 그의 할아버지 Joseph 묘를 방문하기 위해 하얼빈에 왔었다. 큰 꿈을 꾸며, 하얼빈 정부는 묘지의 복구와 유지를 위해 4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Olmert가 위법행위로 정치세가 기울게 되자, 이 전략이 재정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2008년 봄, 시 정부는 묘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중단하였고, 유대학 센터의 회원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²⁶⁾

이러한 물리적 발전과 함께 나온 것이 하얼빈의 유대적 역사를 조명한 수많은 책과 논문이다. 흑룡강성 역사학과의 과장은 하얼빈 내의 유대인 역사는 하얼빈에 있는 중국인 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지목하였다. 이중 중요한 것이 2004년에 출간된 장 티에지양(Zhang Tiejiang)의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 shequ kaocha yanjiu (하얼빈 유대사의 수수께끼 풀기: 하얼빈 내의 유대인 공동체 조사)이다.²⁷⁾ 장(Zhang)의 책은 1999-2003에 발표된 논문들과 하얼빈의 유대인 공동체사와 관련된 1차 사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 티에지양(Zhang Tiejiang)의 책은 유대인 공동체 과거에 대한 중요한 식견을 제공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대인의 하얼빈’ 연구의 일부분이다. 학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유대의 하얼빈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는 대부분 유대인의 하얼빈에 중점을 두었고, 2009년 여름 하얼빈에서 관련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하얼빈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사료의 비접근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자료들은 하얼빈 시와 흑룡강성에 저장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되고 있기 때문

26)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May 21, 2000

27) Zhang Tiejiang 江. 揭開猶太史—猶太人社區考察研究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shequ kaocha yanjiu(Revealing the Enigma of Jewish History in Harbin: A Survey of the Harbin Jewish Community). Harbin: Heilongjiang Renmin Chubanshe, 2005

이다. 외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서국에 접근할 수 없는데, 특히 유대인 문서국과 같이 외국인들과 관계된 곳이 그렇다. 중국인 학자들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감시되곤 한다. 장(Zhang)의 책에 나와있는 1차 자료들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주지만, 아직도 저장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없는 한 그들의 유용성은 일화거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접근을 제한하면서 하얼빈 관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북미, 호주, 유럽에 위치한 망명자들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하얼빈의 고문서고가 공개되기 전까지 하얼빈의 유대적 과거에 대한 연구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얼빈에서 벌어지는 유대적 과거의 부활은 - 학문적 성과와 건축적 복구 작업 측면 모두에서 - 표면적 변화로 보인다. 건축물 복구는 관광지를 늘려주지만, 이윤 관련 부분에만 너무 좁게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외국 투자가 위험에 처하면 정부 보조금을 없애기도 한다. (Olmert 사건이 그 예이다.) 또한 학계는 매력적이고 유익한 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하얼빈 유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 유럽의 하얼빈

‘유럽의 하얼빈’은 하얼빈에 있는 유럽의 문화적 건축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들에 사용하려 한다. 대부분의 종교적 건물은 보통 러시아나 유대적 역사들과 관련이 있고, 유럽적 건물들은 전형적으로 비종교적이다. 러시아나 유대와 마찬가지로 유럽적 유적들도 현재 정치적 경제적 아젠다를 위해 복구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특정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관광과 투자 활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물은 소피아 성당과 송화강(Sungari river) 부두를 잇는 중앙대로 주위의 도보로이다. 이 1마일이 넘는 이 러시아 도시가 세워진 이래 하얼빈의 상업지구의 중심부였고, 하얼빈에 유럽식 건물이 가장 밀집해있는 곳이다. 도보로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1997년에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럽식 건축물, Bellagio Café, the Café Cezanne이나 러시아 레스토랑이 있는 유럽식 테마를 지닌 사업들이 들어서 있는 중국에서 가장 눈에 띄고 유쾌한 도시 중심부 중 하나이다. 이와 비슷한 작업들은 식민지나 반식민지 경험이 있는 상해, 천진, 청도에서도 발견된다. 비록 하얼빈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비 중국적인 빌딩, 도로, 산책로는 관광 선전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하얼빈의 사업 지구가 눈에 띄게 유럽식으로 보이게 한다.

중앙대로의 재개발은 그 중요성을 정당화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을 동반했다. 2000년 출판된 정기간행물은 이 거리의 자세한 역사, 여러 점유 세력들, 그리고 하얼빈에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앙대로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라고 선언했다.²⁸⁾ 동시에 이 간행물은 ‘외국 자본가들 사업’, ‘동양의 모스크바’와 같은 제목을 붙이거나 프랑스가 지은 Hotel Moderne, 러시아 빵집이 만든 하얼빈의 유명한 ‘검은 빵’의 기원을 설명하며 중앙대로의 식민과거의 변영과 창조성을 찬양하였다. 또한, 외국이 지배한 중앙대로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 시기를 중국 굴욕의 시기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병치는 도시의 비 중국적 과거를 마케팅하면서 벌어지는 관리들의 고민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 이후 이어진 외국 지배가 중국 발전의 방해요소였다는 중심적인 논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외국인들

28) Yang Rongqi 楊榮 and Xie Zhongtian 謝中天 天街异彩：哈爾濱中央大街 Tianjie yicai: Haerbin Zhongyang daji (The world's most splendid street: Harbin's Central Street). (Beijing: Jifangjun wenyi chubanshe, 2000)

의 향수를 이용하여 자본을 끌어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01년에 나온 *The Oriental Paris*라는 사진첩이 있다. 이 책은 하얼빈의 사진 기록인데, 중요 중국식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는 명확하다. 전체 151페이지 중에서 ‘중국 전통 건물’장에는 절, 유교 사당, 중학교, 이 세 건물을 다루고 있는 6페이지뿐이다. 중국어로만 출판된 중앙대로를 다룬 책과는 달리 *The Oriental Paris*는 윤이 나는 사진들로 구성되어 중국어와 영어로 출판되었다. 티엔지에 이차이(Tianjie yicai)는 중국독자를 겨냥하여 ‘유럽의 하얼빈’을 중국인의 고통을 대가로 이뤄진 외국의 성공으로 설명하지만, *The Oriental Paris*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를 겨냥하여 화려한 식민지 유산을 기념하는 하얼빈을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하얼빈의 비중국적 과거는 경제적 이점이 별로 없는 도시에 중요한 자산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생기면서 1980년 이후 여러 추세에 의해 만주의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공업에서 벗어나 경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대부분이 해안 지역에 위치한)로 가는 추세, 고용 보장을 없앤 국가 직영 기업의 해체, 국가 사회 보장망의 침식 등은 모두 하얼빈이 높은 실업과 경제 성장이 별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1990년 말이 되면, - 이때 소피아 성당 재개장으로 상징되는 관광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 흑룡강성의 도시 인구 60%가 실업이거나 무급 상태였다.²⁹⁾

29) Patricia Ebrey, et al., eds. *East Asia: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2009), 47

다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업은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하얼빈의 식민적 과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시험적인 시도들이 등장하는 21세기 초에 명백해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의 사건들은 이 추세를 확증시켜주고 이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은 박물관과 문화 관광지로 재개장하였고, 다른 복구 작업도 제의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계획은 중국어보다 영어로 된 언론에서 더 쉽게 발견된다. 이것은 이러한 복구 및 재개장 계획이 국내 보다는 해외를 겨냥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얼빈의 유대적 유산은 이스라엘 관리들 방문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묘지를 열었다 곧 국가 보조가 끊기는 등 가장 지독하게 다시 꾸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얼빈의 새로 개장한 유대 문화 박물관이나 재개장한 시나고그, 유대인 공동묘지는 이스라엘인, 미국인, 유럽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상품이다.

하얼빈은 식민 과거를 혼합된 언어로 표현한다. 중국 정부는 명확한 사회주의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에 의존하여 정통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제국주의가 하얼빈에 남긴 건축 유산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통분모는 역시 자본인데, 중앙정부가 시장경제 체제로 옮겨가고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 정책들을 포기하는 추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치 개혁을 보류하는 중이다. 이 부자가 될 권리와 통치할 권리를 교환하는 익숙한 흥정에서, 중국의 중산층은 1990년대 초부터 소비재 구매가 크게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하얼빈에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통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하얼빈은 북경에서 벌어진 천안문 사태 당시였던 1989년도에 큰 데모가 있었다.) 이것으로 금전적 이윤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하얼빈의 식민 과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890년대에 러시아 기술자들은 만주의 광물과 상업적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영토

내에 러시아의 지방 도시를 세웠다. 한 세기가 지난 후 중국 관리들은 그 도시인 하얼빈의 비 중국적 유산이 이득을 가져오길 바라며 하나의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參考文獻

- Bakich, Olga. "Émigré Identity: The Case of Harbi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Winter 2000): 51-73
- Ben-Canaan, Dan. "The Business of Stereotyping Business," *Mizrekib,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I (November 2008)
- _____. "The Jews of Harbin: Nostalgia versus Historical Reality," *Mizrekib: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I (November 2008): 52-71
- Carter, James. *Creating a Chinese Harbin: Nationalism in an International City, 1916-1932*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A Tale of Two Temples: Nation, Region, and Religious Architecture in Harbin, 1928-1998,"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 1 (Winter 2000): 97-115
- _____. "Touring Harbin's Pasts." Chapter in Daniel Walkowitz and Lisa Knauer, eds., *Memory and the Impact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Public Spa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149-165
- Chiasson, Blaine. *Administering the Colonizer: The Chinese Administrative Takeover of the Chinese Eastern Railway Concession, 1918-29* Vancouver: UBC Press, forthcoming
- Clausen, Søren and Thøgersen, Stig.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Harbin*. Armonk, NY: M.E. Sharpe, 1995
- Duan Guangda 段光達 and Ji Fenghui 紀風輝. 歷史回峻：東方珍珠：哈爾濱 *Lishi huisu: Dongfang zhenzhu: Haerbin* (A glance back in history: Oriental pearl: Harbin). Harbin: Harbin renmin chubanshe, 1998
- Jin, Guang-jun and Zhao, Cong-xi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China: Some Significant Good Practices." Chapter in Gerard, et al., eds. *The Human Sustainable Cit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rom the Habitat Agenda* (London: Ashgate, 2004): 479-490
- Johnson, Ian. "Saving China's Past,"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15, 2008
- Lahusen, Thomas. "A Place Called Harbin: Reflections on a Centennial," *The China Quarterly* 154 (June 1998): 400-410
- Li Fangchao. "Harbin talks of rebuilding church," *China Daily* (September 5, 2005), p. 3.
- _____. "Harbin to rebuild Orthodox church," *China Daily* (December 10, 2004)
- Song Hongyan 宋紅岩. 東方小巴黎 *Dongfang xiao Bali (The Oriental Paris)*. Harbin: Heilongjiang kexue yishu chubanshe, 2001
- Harbin City B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猶太人在哈爾濱的遺迹

- Youtairen zai Harbin de yiji.* (The relics of Jews in Harbin). (DVD), 2008
- Raeff, Marc. *Russia Abroad: A Cultural History of the Russian Emigration, 1919-19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Wang Jing, “Harbin Jewish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unpublished paper. n.p., 2004
- Wolff, David. *To the Harbin Station: The Liberal Alternative in Russian Manchuria, 1898-191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Yang Rongqiu 楊榮秋 and Xie Zhongtian 謝中天. 天街异彩：哈爾濱中央大街 *Tianjie yicai: Haerbin Zhongyang dajie* (The world’s most extraordinary street: Harbin’s Central Street). Beijing: Jiefangjun wenyi chubanshe, 2000
- Zhang Tiejiang 張鐵江. 揭開哈爾濱猶太人歷史之謎—哈爾濱猶太人社區考察研究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shequ kaocha yanjiu* (Revealing the Enigma of Jewish History in Harbin: A Survey of the Harbin Jewish Community). Harbin: Heilongjiang Renmin Chubanshe, 2005

■ Abstract ■

The Future of Harbin's Past

Manchuria has been for at least 400 years a contested land. In the 17th century, it was a zone of contact between Han Chinese and Manchus, who eventually moved south and conquered all of China, and between the Manchus' Qing dynasty and the expanding Russian empire. The first treaties between a Chinese and a European state were concluded in the region, establishing the Sino-Russian border. Two hundred years later, China, Russia, and Japan competed to claim this resource-rich, sparsely populated region. Russian influence and interest in the region reached a peak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inese Eastern Railway, centered on the virtual colony of Harbin, founded in the 1890s. Although technically a joint administration of the Chinese and Russian states, Harbin existed in its first two decades—until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was ruled and developed by Russians, and the legacy of that era remains.

Much of Harbin's 20th-century history revolved around struggles over the city's identity, and also struggles for control of the city's colonial legac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mpetition over Harbin's identity continues to evolve in the early 21st century. After many decades of denying and dismissing Harbin's colonial past, local, regional, and national Chinese governments are now exploiting that past as an asset for the city's economic development. Building on trends that first emerged in the 1990s, Harbin's Chinese rulers are now turning to the city's non-Chinese past as a means of competing in a glob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